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11. 10.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공항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방현하, 서기관 이영규, 주무관 백승현 · ☎ (044) 201 - 4335, 4331	
보도일시		2020년 11월 11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1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대구 민간공항 이전 위한 첫 발을 내딛다

-12일부터 사전타당성 검토...작간접적 파급효과, 소음감소효과 등 분석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현재 대구의 도심에 위치한 대구 민간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‘대구공항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’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용역은 아주대학교 컨소시엄(아주대+주식회사 유신)에서 맡아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,
 - 대구공항의 장래 항공수요 예측을 토대로 현행 대구공항의 운영 및 이용객 특성을 조사하여 이전 부지 내 민간공항 시설의 최적 입지와 규모를 산정하고, 이용객들의 원활한 공항 접근을 위한 교통시설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고,
 - 또한 공항 이전에 따른 직·간접적 파급효과(부가가치, 생산유발, 취업유발 등)와 소음감소 효과 등도 분석할 계획이며,
 - 코로나-19의 확산에 따라 공항을 통한 전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행객의 동선분리를 고려한 시설배치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이번 대구공항 이전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동시에 각각 다른 주체와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,

- 군 공항 이전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“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(대구시에서 올해내 착수예정)”과 연계하여 검토하고, 국토부를 주축으로 국방부,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한편, 이전부지는 ‘20년 8월 28일에 군위(소보)와 의성(비안) 공동 후보지로 결정된 바 있다.
- 국토교통부 김태병 공항행정정책관은 “이번 사전타당성 검토는 민간공항의 이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이용객의 편의는 물론,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중점을 두었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이영규 서기관(☎ 044-201-43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